



루마니아 선교편지

2025. 3. 24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9:23)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감사함으로 루마니아 소식 드립니다.

♣ 복음에 붙잡힌 사역자들

사역하면서 현지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역하고 협력하며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히 복음에 붙잡혀 마음을 쏟아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뜨르너베니 교회에 야노스 장로를 세워주심이 기쁨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불량한 생활로 성도들이 가까이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오랫동안 늘 변함없는 복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그를 최근엔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세웠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의 어눌한 루마니아어 말씀을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 파네 전도사와 함께 뜨르너베니 교회를 섬기며 계속해서 야노스 장로를 통해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브라쇼브시 근처의 꼬들레아 지역에서 집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드레이 선교사가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지도자 기도 모임에서 어린이 사역에 도전을 받고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어린이 양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조금 떨어진 크로아티아 출신인데 루마니아 여자와 결혼을 하고 루마니아에 정착하여 집시 공동체에 거주하며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병약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들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에 도전을 받곤 합니다. 어린이 사역을 시작할 때 펠디와라 교회가 도와왔고 주일학교 사역에 협력하고 있는데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복음에 붙잡힌 일꾼의 신실한 모습에 늘 도전받게 됩니다.

펠디와라 교회를 섬기는 디누 전도사로 인해 늘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신학을 가르쳤고 복음에 붙잡혀 24년간 함께 사역을 해오면서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로 굳건히 세워주심이 기쁨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의 삶을 보며 존경하게 됩니다.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일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안에서 신실한 자로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 펠디와라 교회의 전도주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처럼 루마니아도 갈수록 복음에 냉담하지만, 펠디와라 교회는 다

음 주일을 전도 주일로 정하여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으로 정한 약 100여 가정을 위해 심방하고 전도하며 복음으로의 초청에 나아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론 열매가 적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니콜레타의 열심을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삼 년 전 세례를 받은 후 늘 흐트러짐이 없는 신실한 모습에 감동되어서인지 학교 친구들과 아는 이웃들을 1년 동안 10명 이상 교회로 전도하였습니다. 브라쇼브시에 사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라 펠디와라까지 교통편이 어려워 계속해서 교회에 참석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심이 귀하기만 합니다.

교회로 인도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으로 떠나거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 수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 오르간과 기타로 찬양대를 섬기는 안드레와 머누츠 남매가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 변함없는 어린이 사역

성탄절이 지나고 동절기를 보내면서 활동의 제약이 있었지만 봄이 되면서 펠디와라 지역의 아이들을 전도하며 심방하고 있습니다. 아라치 지역은 다음주 한 주 동안 가가호호 방문하며 아이들을 초청하며 심방할 계획입니다. 뜨르너베니 교회는 파네전도사와 요안나 사모, 야노스 장로 그리고 아디쇼르 집사가 열심을 품고 섬기고 있습니다. 6월 말엔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약 10명의 선교팀이 브라쇼브를 방문하여 약 1주일 동안 주일학교 사역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 신천지 이단에 대항하고자 함께하는 교회 지도자들

‘약해졌던 신천지가 인터넷강의를 진행해 왔고, 최근 브라쇼브 시내에 한 집을 얻어 모임을 이루고 있고, 브라쇼브근교의 2군데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신천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오비듀 목사와 크리스티 목사 그리고 제가 협력하여 신천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교회들에 신천지에 알리고 또한 신천지에 신학 토론 요청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1.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 그리고 브라쇼브 교회들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2. 주일학교 전도와 심방, 그리고 양육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3. 브라쇼브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이단에 깨어있고 기도로 더욱 깨어있도록

* 총회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GMS배만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며 날마다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경진, 예진)선교사 드림